

2021학년도 06월 모의평가
나국어 모의평가 해설

나 국 어
모 의
해 평 가 설
나^국어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과거제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세습적 권리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또한 핵심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핵심 : 과거제

정부의 관직을 ㉠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제 때문에 신분, 추천보다 시험성적이 중요해졌다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 & 추천'을 말 그대로 신분과 추천으로 읽으면 안 되겠죠? '신분 & 세습 = 세습'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정보량을 줄여야 해요.

2문단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 = 과거제>입니다. 과거제의 공정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겼네요. 윗 문단에서 말한 <과거제가 합리적>이라는 서술과 같은 말이지요?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답니다. 핵심이 '과거제'에서 '과거제의 영향'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핵심 : 과거제의 영향 (항상 위, 아래의 핵심과 연결해 가며 읽어야 합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과거제가 일부 제한이 있긴 했다고 부분동의를 하고 있군요. 많은 곳에서 배웠었죠? 목적론, 우주론 등.. 어쨌든 그래도 공정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과 같은 말임을 인지하고 넘어갑시다.

시험 과정에서 ㉡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익명성의 확보 = 공정성>으로 봐야겠죠? 정보량을 계속 줄이세요.

3문단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엔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네요. 당연히 긍정적 측면일 겁니다.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다네요? 공정하니까 공부할 동기가 생겼겠죠. 자꾸 '공정함'이라는 키워드와 묶어 가야 합니다.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 = 기회 증가 = 사회적 유동성 증가 = 익명성의 확보> 모두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핵심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 (공정성과 연결되겠죠.)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그 결과'>라는 것은 윗 문장의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대한 내용이겠죠? 지시어는 **항상 살려서 읽으세요.**

교육이 확대됐으니 당연히 지식인 집단이 늘어났겠죠?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고전, 유교 경전을 학습하니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공유가 늘어났나 봅니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정보를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랑 연결지으며 읽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영? 최종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특권을 부여했네요? 특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글을 바탕으로 한 상식적인 생각은 '시험'을 '통과'해야 관료가 되는 거였는데 말이지요. 이렇게 특이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에 나오겠죠?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경우를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특권을 받고, 지방 사회에서 활동하니 부작용이 완화될 수 있었겠군요.

4문단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가 좋은 제도였으니 오래 유지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 너무 당연한 독해이고, 우리가 잡아내야 할 것은 문장에 나오는 '과거제의 합리성 =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는 정보로, 또 다른 워딩을 대체하면서 정보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왕조가 교체돼도 엘리트층이 연속되었다는 말은 능력있는 관리들이 꾸준히 선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이러한'이라는 말은 '엘리트층의 연속성'이겠죠? 좋은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뽑히니 관료제가 유지될 수 있었겠죠. 이 문단의 첫 문장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제가 기여한 사회적 안정성이죠.** 이 문장들을 모두 다른 정보로 처리하고 있으면 독해력을 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5문단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아 그렇군요.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제가 유럽에 퍼졌답니다. 우주론에서 서구의 우주론이 중국에 전파되어 미쳤던 영향이 떠오르죠? 핵심이 '과거제의 사회적 효과'에서 '과거제의 전파'로 바뀌었네요.

핵심 : 과거제의 전파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유럽 계몽사상가들이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냈냐에 따라서 실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자의 지식 = 과거제> vs <귀족의 세습적 지위 = 세습> 으로 읽어내셨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과거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런지 과거제를 반영한 제도가 도입됐네요.

(가)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과거제의 장점에 대해 서술한 지문이었네요. 절대 어렵지 않았고, 정보량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정보가 너무 나열돼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과거제'와 '세습'의 대립을 중점으로, 과거제의 가장 큰 장점인 '공정성'을 중심으로 핵심을 잡고, 재진술을 파악하며 읽어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럼 (나)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

1문단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유형원의 공거제가 핵심인가 봅니다. <능력주의,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라는 말은 당연히 (가)와 연결지어서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읽혔어야 합니다.

핵심 : 공거제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중국에서는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살리자는 개혁론이 등장했다네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습 = 봉건 = 개혁론>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수식은 ‘=’, ‘반추위’, ‘콰인의 총체주의’ 지문에서 배웠죠?

그나저나 공거제에 대해 설명하나 했더니 아닌가 봅니다. 핵심은 자주 바뀌어도 됩니다. 그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의식하며 잡아내는 게 중요하죠.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염무라는 인물은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고 = 과거제와 같은 제도를 유지>, <지방관은 검증기간 후 지위를 평생 유지, 세습의 길 = 세습> 하자고 주장했네요.

항상 말했듯이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합니다. 별개로, 상층에는 과거제를 유지하자고 했으니 예외로 볼 수 있겠네요. 문제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보니까 핵심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핵심 : 봉건적 제도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세습)

핵심은 꼭 한 단어,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아 과거제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의 생각만 가능해도 문제 없습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황중희라는 인물은 <관료가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 후 추천 = 세습>하자는 주장을 했네요. ‘벽소’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세습’과 같은 말임은 인지해야 합니다.

2문단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등장 배경이 존재하나 봅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과거제의 개선 의무가 있었군요. 물론 이는 위에서 서술되었던 ‘세습, 봉건’ 등의 부활일 것이구요.

핵심 : 개혁론(세습, 봉건 등)의 등장 배경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시험 방식 = 과거제>에 부작용이 있어서 과거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나 봅니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과거제처럼 경쟁하다 보니 <깊이 있는 학습X = 형식적 학습 = 인재들의 재능 낭비>가 생겼군요. 우리는 이 모두를 같은 말로 바라 봐야 합니다. 모두 <과거제의 문제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량을 줄이세요.

선지를 읽고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과거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는 선지라면 이 부분으로 돌아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 과거제의 문제점 (핵심을 항상 위, 아래랑 엮으라 했죠? 이 핵심은 위에 나오는 핵심인 ‘개혁론의 등장 배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인성, 실무 능력 평가X = 과거제의 문제점>으로 읽어야죠? <익명성에 대한 회의 = 과거제에 대한 회의>로 읽어야 하구요.

3문단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관리한테까지 연결되었군요. 핵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핵심 : 과거제로 임용된 관리에 대한 비판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과거제의 특징이었던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었답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지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장이 매우 길지만,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키워드로 이 문장을 읽어내야 합니다. 위 문장에서 분명히 <능력주의적 태도가 관리한테도 적용되었다.>고 나왔으니 말이죠. 분명히 그와 관련된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습적이지 않고, 성과를 내야하는 관리들은 성과를 위해 가지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중시했네요. 말 그대로 **능력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이죠. **능력주의**가 관리의 평가에도 적용이 되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개인적 동기 = 능력주의적 평가에서의 좋은 평가에 대한 욕구 = 과거제> vs <공공성 = 세습 = 봉건 = 개혁안> 으로 읽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 개인적 동기 = 과거제>이죠?? 그냥 위문장과 같은 말입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위에서 했던 말들과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과거제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 출세 지향적 = 능력주의>, <세습 엘리트 =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 =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이라는 것이죠.

절대 정보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4문단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역시 문장이 길지만, 하나하나 재진술을 잡아가면서 읽어봅시다.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 봉건, 세습 제도>이라는 말이겠군요. <그 외의 정치 체제 = 과거제 외의 정치체제>일 것이구요.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 = 공공성 = 세습 = 봉건 = 개혁안>은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계속 그 말밖에 안했는걸요?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봉건적 요소 = 세습>의 회복이 단순히 복고적 이유에서만은 아니었다네요.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 과거제의 부작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 = 봉건 제도 = 세습>를 활용해서 보완하고 싶었다는 의미이군요.

절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나열된 지문도 아니구요.

재진술과 비교/대조를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내용도 어렵지 않고, 불친절한 서술도 없기에 아직 독해력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이 지문으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6월 총평에서 올해 포인트는

1. 비교 / 대조
2. 세밀한 선지 구성
3.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비례증감 (문제 포인트)
4. 불친절한 서술 (이건 2020 학년도부터 항상 있어왔죠?)

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중 (가) vs (나)를 통해 1번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와 같은 유형은 9평은 물론 수능에도 출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렵게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 까다로운 비교지점을 통해 지문 이든 문제든 어렵게 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연습해두시길 바랍니다.

16.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2%	6%	5%	17%	10%

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인과적’이라는 말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와 (나) 모두 과거제의 어떤 특성 ‘때문에’ 사회에 ~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서술하고 있으니 충분히 인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충분히 나타나 있으니까요.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 특정 제도(과거제)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속을 수도 있는 선지인데, 과거제에 대해 (가) 하나, (나) 하나가 존재하여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닌 한 지문에 두가지 이론이 나온다는 진술입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며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가 바뀌어야겠조?

④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나)가 선호와 비판의 근거를 비교하진 않았조? 비판의 근거가 나왔을 뿐.

⑤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이 선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통시적’은 몰라도 ‘공시적’은 그동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왔던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았던 용어들로 변별하려는 의지가 조금 보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과거 기출을 참고하며 어색한 용어도 기억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가)를 시대순으로 서술하지도 않았고 (나)도 어떤 특정한 시대에 맞추어 서술하지 않았습니니다.

17.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0%	5%	6%	55%	4%

①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 과거제가 유럽에 미친 영향이었조? ‘엥 갑자기 유럽??’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②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 <과거제 = 공정성 = 기회의 증가 =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 = 폭넓은 지식인 집단> 맞조? 저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제’의 이점 중 ‘공정성을 통한 교육의 확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지 않더라도 **핵심** 중에 과거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떠올리고, 그곳으로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③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특이했던 점이었조? 시험을 통과 못했는데 혜택을 받다니..!

④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

- <지방의 관료에게 초빙??> ‘공정한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거제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선지입니다.

- 이와 별개로 이 선지가 주는 교훈은, (가)(나)형 지문의 문제에서 (가)에 관한 문제의 근거가 (나)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관료에 의한 초빙은 (나)에 존재했던 워딩이니까요. ‘(가)와 (나)를 비교 / 대조하며 읽어라!’ 라는 평가원의 바람이 아닐까도 싶네요.

⑤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 <귀족의 지위 = 세습>보다 <학자의 지식 = 과거제>가 우위에 있는 체제를 긍정한 사상가들이 있었조? 이 자체가 (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8. (나)를 참고할 때, ㉠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선지	㉠	㉡	㉢	㉣	㉤
선택률	19%	55%	11%	8%	7%

- 일단 ㉠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

- 이러한 제안이 등장한 배경은 과거제의 부작용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제의 부작용이 아닌 것을 설명하는 선지를 고르면 됩니다.

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능력주의적인 모습, 단기적인 성과, 약한 공공성 등이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부작용이었죠? 틀리지 않았네요.

②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 = 세습>이 공공성과 상충됨? <봉건 = 세습 = 공공성> 이었습니다.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선지죠! 애초에 과거제와 봉건적 요소는 반대말이었으니까요.

③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 개인적 동기가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이젠 아시죠?

④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 지향적이어서 장기적 안목보다는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과거제 = 출세 지향적 = 능력주의적>이라 단기적인 성과만 중요시 했었죠? <근시안적인 = 단기적인>으로 읽을줄 알아야 합니다.

⑤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만을 내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위에 설명 했네요 ㅎㅎ

19. (가)와 (나)를 참고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지	㉠	㉡	㉢	㉣	㉤
선택률	11%	5%	7%	73%	4%

㉠ 익명성의 확보 - (가)
 ㉡ 익명성에 대한 회의 - (나)

- 드디어 (가) vs (나), 즉 비교 / 대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 (가)에서의 '익명성의 확보'는 공정성에 대한 얘기였고, (나)에서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인성, 실무능력의 평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죠?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올라가서 확인하고, 키워드를 잡은 후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① ㉠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 ㉠은 공정성에 대한 내용이었으나, <응시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 부분동의>의 진술을 생각하면 맞다고 볼 수 없죠? ㉡은 '인성, 실무능력의 평가'에서 나온 내용이었으니 결과주의의 확산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보긴 힘들겠네요. (나)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합치한다는 이유로 맞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선지를 세밀하게 봐야해요. 정말로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② ㉠은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은 대대로 관직을 물려받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 ㉠의 키워드랑 맞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찾아야 해요. ㉡도 마찬가지로 인성 & 실무능력 평가에 관한 내용을 찾아야합니다.

③ ㉠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

- 둘 다 관계가 없습니다.

④ ㉠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은 관리 선발 시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 <기회의 확대 = 공정성>, ㉠은 맞는 선지네요. <됴됨이 검증의 곤란함 = 인성 평가>, ㉡ 또한 맞는 키워드입니다.

⑤ ㉠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은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

- ㉠은 도덕적 가치 기준의 공유였지, 다양성이 아니었죠?

- ㉡은 아예 반대말입니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8%	13%	8%	68%

- 항상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문 내용이 언제 등장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하며 보기를 읽으세요. (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 이 <비판하기> 문제는 올해 출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비교 / 대조를 강조했었는데, 그런 형식의 글에서 꼭 나올 수 있는 문제이니 **각자의 입장을 정확히 따지고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 < 보 기 > —

○ **갑** :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이군요. 과거제의 이점에 대해 말하고 있군요.

○ **을** :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과거제가 사회에 준 영향이었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지만 뒤에 나오는 선비들의 재능 낭비가 안타깝다는 내용은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 **병** :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학습의 깊이가 없다는 것은 과거제의 부작용이었고, 학습, 교육의 확대는 과거제의 이점이었습니다.

- ①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 = 과거제의 이점>이었죠? 재진술만 잘 잡아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치열한 경쟁 유발 = 과거제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확히 비교하며 풀어내면 됩니다.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 = 과거제의 이점 = 고전과 유교 경전의 공부>이었죠? 기억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문으로 돌아가서 (가)부분의 과거제의 이점을 찾으면 됩니다. 핵심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정확한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 = 과거제의 부작용>이었죠?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과거제의 부작용이었습니다.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교육에 대한 동기 강화 = 과거제의 이점>,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 = 과거제X> 서로 반대의 키워드입니다.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과거제의 부작용이자 한계이었으니까요.

21.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	9%	2%	85%	3%

- ① ㉠ : 그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문을 잠가 버렸다.
- ② ㉡ : 우리는 그 당시의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 ③ ㉢ : 협곡 사이에 구름다리가 멋지게 걸쳐 있었다.
- ④ ㉣ :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 ⑤ ㉤ : 형편이 어려울수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낮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나무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다네요. 긍정적 어감의 진술은 아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화자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지 않았으니 성급히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다'네요. '울어 왔는가.' 라는 것을 보니 **확실히 화자에게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네요.** 또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캐치했으니, '홀로'라는 단어는 '고독'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긴 밤'을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들은 핏줄'이라는 것을 보아, 1연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보면 화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기가 없고, 삭막한 상태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이 두 행은 화자의 내면 깊숙이까지 종소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한 진술입니다. 즉,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온다는 것으로 보아 '긴 밤'에서 '아침'이 되면서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겠네요. 사실,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온다.'는 내용을 통해 '아! 화자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입니다. 결국 감상력을 기른 학생은 저 정도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이제 <눈 감아도 = 어둠이어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라고 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을 '어둠'으로 해석할 수 없더라도 **꽃다운 하늘**이라는 워딩을 보고 화자에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눈 감는 것 = 어둠 = 밤>으로 생각하여, 1연에서 '긴 밤'에 울던 화자가 지금은 어둠이 되어도 관찮은 상태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래 떨던 샛별 보고 '숨으라' 합니다. 절대 시를 읽으실 때 사소한 시어 하나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샛별'이니까 화자한테 좋은 대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다면 '서술어'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샛별'보고 '숨으라'는 것을 보아 '샛별'은 숨어야 하는 대상이니, 화자에 있어 이상적인 대상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이제 어둠에서도 꽃다운 하늘을 볼 수 있으니, 샛별아 너가 힘들고, 떨고 있다면 내 영혼의 촛불로 와서 숨어.' 정도가 되겠네요.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환히 트이는'이라는 것을 보아 떠오르는 햇살은 화자에게 긍정적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긴 밤'과 대비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시월상달의 꿈'과 같은 것은 현장에서 알 수 없으니 넘어가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햇살 = 시월상달의 꿈>이라는 진술을 통해 부정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잡아낼 수 있겠네요.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메마른 입술'은 앞에 나온 '시들은 핏줄', '사늘한 가슴'과 같은 것이죠? 이제 피가 돈다는 것으로 보아 '피'는 '은은한 종소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학은 절대 상황, 정서와 같은 진술이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을 유지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정도까지는 잡지 못하더라도,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도는 것으로 보아 나쁜 상황은 아니네.' 정도의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리의 가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새들이 '즐겁게' 노래 부른다는 것을 보아 역시 1연에서 화자가 처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는 것을 보아서, '향기롭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대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다시 산마루로 왔습니다. 만약 이 연만 존재한다면, '맑은 바람'이 긍정적 대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연 이후로 화자의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맑은 바람'은 충분히 화자에게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화자에게 좋은 대상임을 알 수 있겠네요.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나)시를 읽기전에 <보기>부터 보고 읊시다. <보기>가 시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먼저 읽고, 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읽으러 갑시다!

— <보 기> —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화자는 ‘도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네요.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나무의 푸름’, ‘아름다운 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가 많지만 도시에서는 ‘도구적인 것’으로 평가된대요. <도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정보를 뽑아내야 합니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방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을 ‘반어법’으로 인식한답니다. ‘반어법’은 ‘내면세계와 반대’를 뜻하는 거였죠? 사실 꽃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에서의 도구적 가치를 나타내듯이, 반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군요.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꽃을 피우는 나무 = 치욕>입니다. 우리는 <보기>가 말해준 대로 생각해야해요. <보기>가 있는 이상 절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자가 나무에게 동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화자도 도시에 뿌리박지 못하고,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자신에게서 치욕을 느낀다는 것이겠네요.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보기>에서 ‘꽃’은 ‘치욕’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시에서도 ‘꽃’보고 ‘반어법’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화자는 도시에서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부정적이게 여긴다는 것을 ‘서술어’를 통해 알 수 있네요.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그런 도시라도 악착같이 적응하려 하는 나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도시에서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에 ‘비튼다’는 것은 부정적인 속마음을 ‘꽃’과 같은 형태로, 반어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무’는 ‘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 나비 & 벌>이므로, 나비와 벌은 화자에게 있어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벌레 또한 마찬가지로요. ‘내성이 생긴 이파리’라는 것은 도시 생활에 적응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모든 것은 <보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도시에 적응하여 피우는 꽃입니다. ‘시끄러운 가로등’, ‘신경증’, ‘불면증’이라는 워딩을 보면 알 수 있죠?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알고보니 ‘나무’가 ‘푸른’ 것은 ‘치욕’이라고 합니다. <나무의 푸름 = 치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10%	68%	12%	6%

- ①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경을,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 계절의 변화가 있었다면 알아챌어야 합니다. (가)는 애초에 계절이 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세계가 추가 되는 시였습니다.
 - (나) 또한 공간의 이동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맞는 것을 찾으세요. 애매한 것은 내지 않습니다.**
- ②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 (가) 시에서 자연의 위대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자의 내면세계가 추가 되는 시입니다.
 - (나)시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도시에 대한 두려움이면 몰라도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는 나중에 판단해도 됩니다. 있긴 있네요.
- ③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를 보니 '숨어라', '사양해라' 등의 워딩에서 명령형 어조를 읽을 수 있네요. 숨고, 행동하라 하니가 대상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틀리지는 않았어요.**
 - (나)에서는 '~한 것이다.', '~하다.'와 같이 단정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나무가 치욕으로 푸르다' 등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군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 ④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 (가)에서 '나래 떨던 샛별'이라는 것으로 보아 '인격화 = 의인법' 했다고도 볼 수는 있네요. '새들이 '노래 부른다'고도 하구요. '화자의 소망'을 전달했는지 판단해 봅시다. '나래 떨던 샛별'이 숨는 것을 '원하는' 화자이므로 소망을 전달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 (나)에서도 '나무가 '치욕'을 느낀다는 것으로 보아 의인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치욕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화자의 소망'이 될 수 없으니 **절대로 적절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도 의인법일 수는 있으나, '화자의 소망'과는 거리가 멍니다. 억지로 도시에 적응하는 게 '화자의 소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 ⑤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도치된 표현을 찾기로 참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극복 의지를 드러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겠네요. (가)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거야!'라는 식의 워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도 '도시'의 현실에 대해 안타깝게 말하는 내용만 존재하지, 극복 의지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 (가)에는 도치가 없고, (나)에는 존재합니다. (참을 수 없다 나무는)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1%	8%	6%	46%	9%

- ① [A]의 '높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아주 간단히 해설해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를 화자가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이죠.
 - 조금 더 세밀하게 선지를 분석해보면, [A]에서의 '문제'는 화자가 '간구'하는 것으로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상황, 요소를 기다리는 것이라 볼 수 있죠. [B]의 상황은 이미 [A]에서 간구하던 것이 해결된 상황이므로 [B]에서의 '문제'는 '더 나은 상황,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A]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화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못 박힌 듯'한 자세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인정해줄 수 있겠네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B]의 상황을 고려합니다. [B]는 화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웃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보는 것은 **확실히 틀렸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A]의 '긴 밤'이 '아침'이 지나고 긍정적인 상황이 되어, [B]의 '맑은 바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짜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A]에서 [B]로 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샛별'과 '짜릿순'은 이상적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화자가 '숨으라'고 하고 '사양하라'고 하는 대상인데 어떻게 <지향점 = 이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나요.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 [A]와 같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간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의 도래이니, 생명력 회복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B]의 '노래'는 긍정적 상황에서 부르는 것이니, 생명력 회복 이후의 소망을 표출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6%	4%	82%

<보 기>

「나무의 수사학 1」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방어법으로 인식한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 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까 읽었던 <보기>죠? 풀어봅시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 ‘들뜬 뿌리’를 ‘내리자’는 화자의 말은 이 도시에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적응하려 하는 화자의 모습과 동질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도 화자는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군요.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 시를 읽으면서 잡아냈죠? ‘내성’이라는 것은 도시에 적응하며 생긴 ‘부정적 성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 너무 당연한 선지입니다. ‘시끄러운 가로등 곁 = 도시’에서 ‘방어법’으로도 ‘꽃’을 피우며 견뎌야 하는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 ‘꽃’이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난다 했으니 틀렸다 볼 수 없습니다.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 <보기>에서도, ‘시’에서도 화자는 ‘도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라는 표현은 맞지만, 그것을 ‘나무’에 대한 비판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 없죠. 확실히 틀린 선지입니다.**

- 올해 문학, 세밀한 선지 판단을 조심합니다. 선지의 모든 부분을 ‘지문’에 근거해서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판단해주세요. 물론 조심스러우면서도 깔끔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FACT를 바탕으로 말이죠.
- 서술어에 주목하시면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 볼 수 있습니다. 제발 ‘화자’의 진술에 주목하세요.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어로 그 대상 자체에 대해 선입견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건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평가원이 지문을 시작할 때 항상 사용하는 형식이죠. 어쨌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때의 흔들림에 대한 내용이네요.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안정화/기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상을 안정화하는 기술>이죠. 흔들림을 보정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이 어느 정도 잡히네요.

핵심 : 영상 안정화 기술

2문단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 등이 있다.

핵심을 그대로 끌고 오네요.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니까 ‘광학적’ 기술>,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니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군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항상 하던 거죠?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개념을 이해하고, 지문 끝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광학 영상 안정화(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광학/영상/안정화> 기술은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이란 같은 말이죠?

어쨌든 OIS에는 수많은 장치들이 사용됩니다. <렌즈/모듈 = 렌즈와 관련 있나 봅니다.>, <이미지/센서 = 이미지와 관련된 센서입니다.>, <자이로/센서 = 자이로가 뭔지 알면 좋지만 모르겠다면 그냥 ‘센서’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어/장치 = 흔들림을 제어해주는 장치겠죠? 핵심과 자꾸 엮어야해요.>,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 말 그대로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인가 봅니다. 보정에 쓰이지 않을까요?> 장치가 많이 쓰이는 모습이 CD드라이브 지문과 비슷하죠?

이렇게 수많은 장치가 쓰이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하며 의미를 살리다 보면 남은 문장을 읽을 때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개념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핵심이 살짝 바뀐 거 같죠? 상위 개념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고 그 아래 하위 개념으로 OIS가 존재합니다. 항상 ‘목적이 되는 상위개념’을 읽으면 안됩니다.

핵심 : OIS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된다.

이제 장치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려 하는 것 같네요. 렌즈 모듈은 말 그대로 렌즈가 여러 개 있는 모듈인가 보네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된다.

문장이 길지만,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에서 과정이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집중합시다.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과정을 따라갑시다.

렌즈를 통해 빛이 들어옴 →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히고 (‘이미지/센서’니까 ‘상’이 맺혔겠죠?) →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 =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한 전기 신호가 생깁니다. → 그에 맞게 영상으로 저장되는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온 빛이 영상이 된다!’ 그 과정에서 ‘렌즈니까’ 빛이 들어오고, ‘이미지 센서니까’ 상이 맺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학기술에서 전기 신호로 무언가가 기록되는 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구요.>

핵심이 ‘카메라의 원리’로 넘어온 것 같네요.

핵심 : 카메라의 원리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당연하죠?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안정화/기술이네요.

이때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다시 OIS 기술에 대해 서술됩니다. 흔들림을 ‘보정’해야 하니... 당연합니다. 핵심이 다시 OIS로 바뀌었죠?

핵심 : OIS

자이로 센서가 뭔지 몰랐는데, 자이로 센서의 역할이 나오네요. 지문에서 어떤 개념이 수행하는 역할 = 정의로 읽어야 합니다. 문제는 절대 ‘사전적 정의’에 의거해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지문 내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가에 주목합니다.

자이로 센서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럼 제어 장치가 제어를 해주겠죠..?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제어 장치가 ‘제어’를 해주네요. 역시 ‘영상 안정화 기술’입니다.

3문단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보이스코일 모터’같은 거에 집중하기 전에, 렌즈를 왜 움직일까요? <흔들림을 보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읽고 있는지 생각하세요. 어쨌든, 렌즈를 움직이는 데에 보이스코일 모터를 사용한다네요. 핵심이 조금 세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해 주겠군요.

핵심 :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보정 방법)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

카메라 모듈이 보이스코일 모터를 포함하고 있다네요. 카메라 모듈이 더 큰 상위개념인가 봅니다. 또한 카메라 모듈의 구조를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일, 자석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으니,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실전에서 할 수 있을 정도만.**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한다.

흔들리면 제어 장치 때문에 전류가 흐름 → 힘이 발생 → (이 힘으로 보정하겠죠?)

제가 왜 중간에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를 생략했을까요?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자기장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고, 전류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직각 방향이라고 하면 어느 방향이 직각 방향인지도 모르죠.

CD드라이브 지문같은 경우는 트랙이 나선형이라는 것과 랜드와 피트의 구조를 미리 위에서 알려줬으니 구조를 바탕으로 상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핵심에 맞게,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구나.’ 하고 넘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힘이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역시 렌즈를 이동시키죠? 이동시켜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 = 보정>하구요. 핵심을 잊지 마세요.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보정의 방법에 이미지 센서를 움직이는 방식도 있나봅니다. 사실 이렇게 <한편, 이외에도>와 같은 느낌의 추가 정보를 주는 워딩이 나오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는 건 좋아요. ㅎㅎ

4문단

OIS 기술이 손 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 좁다.

OIS가 좋은 기술이긴 해도 한계가 있다네요. 당연히 <소프트 웨어 = 디지털>로 보완하겠죠? 상위 개념을 잊지 마세요. <영상/안정화/기술>말이죠.

디지털 영상 안정화(DIS)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역시 DIS에 대해 설명하는군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한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넘어가죠.

핵심 : DIS 기술 (OIS의 단점 보완)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이 기술 = DIS 기술>, 지시어 살리시구요. DIS 기술은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고,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하는군요. ‘왜 프레임 단위로 나누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보정하려고!’라는 답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핵심은 저거밖에 없어요. 만약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현장에서 잡아내려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글에 있는 내용으로 납득해야해요.**

움직임을 추정하는 한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움직임을 추정하려면 <특징/점>이 필요하다네요. 특징을 알려주는 점이니까 움직임을 추정하기 유리한가 봅니다.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된다.

특징/점은 특징을 보여주는 점을 선택하겠죠? 즉, 지문에 서술된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며 =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흔들려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 = 특징>으로 읽어야 합니다. ‘밝기가 뚜렷이 구별되니까 특징점이지!’, ‘흔들려도 밝기 차이가 유지되니까 특징점이지!’ 이렇게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구요.

5문단

먼저 k 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1 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는다.

본격적으로 DIS 기술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군요. 핵심은 여전히 DIS 기술이지만 좀더 세부적인 과정을 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번째 같은 거 나온다고 겁먹지 마시고, 그냥 'k'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점은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죠? 연속된 프레임 사이에 특징점을 찾았군요.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하여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이 두 프레임 = k & k+1 프레임>이죠? 특징점을 통해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합니다. 당연하네요.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는군요. 아주 당연합니다. 흔들림을 보정하면 동영상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특징점의 수가 늘어나면 연산이 늘어난다? 음성인식기술 지문에서 봤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특징점이 많아지면 당연히 계산할 게 많을 거고, 연산도 오래 걸리겠죠. 이 정도는 과학기술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한편> 나왔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할 테니 집중해달라는 표시입니다. 흔들린 영상을 보정할 때 영상을 회전하면 빈 부분이 있겠죠?

비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 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은 떨어진다.

영상을 잘랐으니 프레임이 작아질 수 있겠죠? 잘라내는 게 '올바른 보정'인데, 자르지 않으면 '화질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올바르게 보정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도 어떻게든 보정이라는 핵심을 끌고 가야합니다.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보량이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지문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아.. 정보 많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상위개념을 잘 잡았는지,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었는지, OIS와 DIS가 뭐가 다른지 비교/대조 해 가면서 읽었는지, 과정에 주의했는지> 성찰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핀트가 어긋났다면 아주 어렵게 읽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OIS와 DIS의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9%	24%	14%	14%	9%

-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정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올해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철저하게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의 세밀함에 집중하세요. '하나하나' 따지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 'P → Q 선지 분석법' 연습하세요.
 - ①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 P : DIS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맞죠?
 - Q :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켜 보정한다는 서술은 OIS에서 나왔습니다.
 - → : DIS와 OIS는 절대 연결되지 않죠? 올해 포인트인 '세밀한 선지 판단'과 '비교/대조'가 모두 녹아 있는 선지입니다.
 - ②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 이 선지와 1번 선지를 고민하다가 틀리거나, 시간을 많이 낭비한 학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미지 센서'의 정의, 역할을 찾고 선지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 분명히 카메라의 원리에서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힌다고 했으니, OIS를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라 할지라도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구현하려면 이미지 센서가 필요합니다.
 - 시험장에서 '1, 2번 둘다 답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당황하셨다면,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셨다면, 다음 시험부터는 <침착하게 정의로 돌아간다.>라는 전략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 ③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 <피사체의 위치 차이 = 특징점의 위치 차이>입니다. 특징점은 어디서 나왔죠? DIS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연속된 프레임에서 특징점의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동영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DIS 기술이었으니, 위치 차이가 작다면 동영상이 당연히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 시험장에서 세세한 과정을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지의 키워드를 보고, 납득했다면 납득한대로, 못했다면 그 위치로 돌아가서 '정의 = 역할'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④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
 -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고,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생긴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카메라의 원리였죠? 사실 2번 선지와 같은 선지입니다.
 - 3번 선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지 센서 - 화소 - 전기 신호 - 영상'의 키워드, 특히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면 편했겠죠? 그 정도 독해력은 길러내셔야 합니다.
 - ⑤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 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

- <보정 기능이 없다면?> 이 지문의 핵심인 영상/안정화를 하지 못하겠죠. 그 말은 영상이 흔들린다는 것과 같고, 결국 카메라의 원리에서 <이미지 센서, 화소, 빛의 세기, 영상>의 흐름을 따라갔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 2, 4, 5는 모두 같은 것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카메라의 원리>이죠. 다시 생각해 보면 평가원은 OIS와 DIS 같은 '보정' 기술 전에, 카메라가 작동하는 원리를 더 상위개념으로 생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소한 곳에서 평가원을 배우셔야 합니다. 9평, 수능에 이와 같은 지문은 무조건 나올 것이고, 그 경우 우리는 꼭 <가장 상위 개념이 되는 기본적인 원리>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26. 윗글의 'OIS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49%	9%	14%	23%

- ① 보이스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이다.
- 카메라 모듈이 상위 개념이었죠? 카메라 모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스코일 모터였습니다.
- 기억 안 나서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보이스코일 모터'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구조, 정의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②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맷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 이 선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만 하면 됐는데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자이로 센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OIS 기술에서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OIS 기술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자이로 센서'의 정의를 확인하고, 세밀하게 선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 자이로 센서는 방향과 속도를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친구였죠? '이미지 센서에 맷히는 영상'을 전달하는 게 아니구요. '세밀한 선지 판단'과 '확실한 정의 체크' 꼭 기억하세요!
- ③ 보이스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힘으로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다.
- 보세요. 직각방향? 따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보이스코일 모터의 목적은 핵심인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 선지는 보이스코일 모터의 정의를 물어본 것과 다름이 없어요.
- ④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 이동의 범 위에는 한계가 있다.
- 그래서 DIS 기술이 등장했죠? OIS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OIS, DIS를 이 분법적으로 읽어낼 수 있었어야 해요.
- ⑤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의 상이 이동하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 OIS 기술의 정의 그 자체네요. '보정'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시다. CD 드라이브에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2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60%	20%	8%	5%

<보 기>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 점들의 밝기 차이가 (A),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 변화가 (B)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그리고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C)이/가 늘어난다.

- 이런 문제는 먼저 A, B, C에 답을 적고 선지로 내려가야 해요. 특징점이 어떨 때 <위치 추정이 유리>하냐고 묻고 있네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먼저 한정시켜놓고 풀어야 합니다. 31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려면, <특징/점> 이니까 특징이 잘 살아있어야 합니다. 즉, 주위 점들과 밝기 차이가 커야하고, 흔들리기 전, 후에도 그 밝기 차이가 유지되었어야 했죠. 즉, A는 '크다.' B는 '작다.'입니다.
-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상황은 특징점이 많은 상황에 C가 늘어난다는 진술이네요. 음성인식기술 기억나시죠?? 특징점이 많으면 연산량이 많아 집니다. C는 '연산 시간'이네요.
- 만약 마지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DIS의 과정 설명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비례/증감을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만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논리적 이해에 따른 비례/증감>이 이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눈으로만** 풀려하면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생각' · '납득'하는 연습을 합시다.

	A	B	C
①	클수록	클수록	프레임의 수
②	클수록	작을수록	시간
③	클수록	작을수록	프레임의 수
④	작을수록	클수록	시간
⑤	작을수록	작을수록	프레임의 수

2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3점]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32%	33%	14%	11%

<보 기>

새로 산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항상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 지문 내용인 OIS가 나오는 순간 집중을 해줘야겠죠? 'OIS를 통해 보정을 하겠네.'라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던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문제가 생겼네요!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보정'해야겠네요.

집에 돌아와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 한다.

OIS 기능을 켜고 촬영을 했는데 k+1번째 프레임에 흔들림이 보입니다. 이제 이걸 <소프트웨어 = DIS>로 보정한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키워드를 보고 DIS가 떠올라야 해요!

[촬영한 동영상 중 연속된 프레임]



㉠ k 번째 프레임



㉡ k+1 번째 프레임

① ㉠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

- 우리가 특징점을 선택하는 위치는 어디였죠? 피사체의 모서리와 같은 곳처럼 주변과 밝기 차이가 '뚜렷한' 곳이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DIS 기술 중 특징점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의 피사체는 누가 봐도 건물이죠? 따라서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인 '건물의 모서리'가 특징점이 되겠네요.

② ㉡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는 것을 프레임을 잘라냈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DIS 기술의 마지막 과정에 <한편>과 함께 나오는 진술이니까요. 프레임을 잘라 내면 영상은 보정되었어도 손실이 일어났겠죠?

③ ㉠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하여 ㉡을 보정하겠군.

- <빌딩 모서리 간의 차이를 특징점!>이 아니라 <빌딩 모서리'를' 특징점>으로 잡는 것이죠. 특징점의 정의에 대해 정말 '세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 특징점의 위치 차이를 계산하여, 흔들림에 의해 이동한 만큼 보정을 하겠죠? '세밀'하고 '예민'하게 판단하세요.

④ ㉠은 OIS 기능으로 손 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 ㉠과 ㉡은 모두 동영상을 촬영할 때부터 OIS 기술로 보정이 들어간 화면입니다. 다만 흔들림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미처 보정하지 못한 (= OIS 기술의 한계) 부분을 DIS로 보정하는 것이니, ㉡을 OIS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틀린 분석이죠.

⑤ ㉡을 보면 ㉠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4번 선지와 같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OIS의 한계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DIS로 보정하는 것인데, 이 선지에서는 ㉡이 DIS로 보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DIS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말한다.

특허권의 정의이죠?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네요. 어차피 못외우니 '권리'라는 것만 잡고 넘어갑시다. 만약 정의가 길다면 <주어와 서술어>에 집중해서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야매 TIP입니다.

한편 영업 비밀은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나왔죠? 사알짜 집중해줍시다. 영업 비밀의 정의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술 / 경영상의 정보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네요. <어떤 조건>인지 궁금해 해야겠죠? 2020수능까지의 트렌드였으니까요.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은 이 같은 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창출된다.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인데,>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상위 개념을 특정해주고 있죠? 특허권, 영업 비밀 모두 <지식 재산>입니다. 항상 상위 개념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ICT 산업은 지식 재산이 기반이 된답니다. 핵심이 잡히죠?

핵심 : 지식 재산

지식 재산 보호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식 재산 보호 문제> + <ICT 기업의 과세 문제> 이 두가지가 불거지고 있다네요. 앞으로 나올 서술은 분명히 과세 문제 혹은 지식 재산 보호 문제가 되겠군요.

2문단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먼저 서술되는군요. 우리는 일단 핵심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핵심 :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

과세 문제 중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네요. 개념을 던져 줬으니 이제 분명히 정의가 나오겠죠? 집중합시다.

디지털세는 이를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의 정의가 나옵니다.

디지털세 =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세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배경이 나왔네요.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인세**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정의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이 아주 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악이 어렵다면 주어와 서술어에 주목해보세요. <법인세는 ~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원지는 몰라도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군요. 그 후에 하나씩 정의를 잡아봅시다.

1.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중 가장 중요함.
2.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더 잡았어야 합니다.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 이윤>이죠. 수식으로 정의된 부분에 대해 '예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각종 정의에 대해 세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문단

①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여전히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라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군요.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지 봅시다.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윤을 몰아주고 있다네요. 여기를 어떻게 독해했느냐에 따라 상위권과 중위권이 갈립니다.

상위권 : 아! 일부러 이윤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몰아주면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인 법인세'가 줄어들어서 기업한테 이득이 되겠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는 법인세를 못 받을거고... 문제네..

중위권 :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윤을 몰아주면 문제구나! 끝.

ICT 기업에 대한 과세가 '왜' 문제가 되는지 고민하세요. 그 핵심을 바탕으로 디지털세와 법인세의 관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해야 하구요.

예를 들면 ICT 다국적 기업 Z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워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주세요? <예시에 개념 적용하기> 잊지 않았죠? 평가원은 자꾸 19학년도부터 예시를 통해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시키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어요.

꼭 개념을 떠올리고 적용합니다. 여기서 개념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이윤을 몰아주는 행위였습니다.

ICT 기업 Z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A국에 자회사를 세웠다네요. 왜일까요? 이윤을 몰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특허의 사용 권한을 부여 = 이윤을 몰아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를 자꾸 늘려가면 안 돼요. 재진술을 하나의 핵심을 자꾸 끌어모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A국보다 높은 B국에 설립된 Z사의 자회사에서 특허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Z사는 B국의 자회사로 하여금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수수료인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B국은 A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고 합니다. A국에 이윤을 몰아준다고 했었죠? B에서 발생한 수입을 A에게 몰아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역시 B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로열티의 형태로 A국에게 지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로열티'라는 것을 A에게 돌아갈 '이윤', B가 사용하는 '제반비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수입에서 나가는 비용이니 당연히 '제반비용'입니다.

그 결과 Z사는 ①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B국이 '로열티'를 '제반비용'의 형태로 지출하면, <수입 - 제반비용 = 이윤>이므로 이윤이 줄어듭니다. B국은 상대적으로 A국보다 법인세가 높으므로 B국에게 돌아갈 이윤을 줄이고 A국에게 이윤을 몰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Z에 돌아갈 이득이 커지니까요.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ICT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를 보유한 국가도 법인세 징수가 문제가 되지만, '본사'를 보유한 국가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사'가 존재하는 만큼 수입이 많을텐데,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얼마나 매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겠죠?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중 어떤 국가 =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겠죠?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는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해야 하기에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라고 합니다. 지문이 불친절해요. 왜 방어적인지? 디지털세는 왜 도입해야 하고 주도적 국가는 왜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인지 등 써주지 않은 부연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단에서의 예시가 <ICT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기업이 법인세가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대한 이윤을 줄여서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국가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수입'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디지털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자체는 속일 수가 없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주도적인 국가는 왜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일까요? 주도적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얻는 수입만큼 세금을 걷고 싶을 것입니다. 주도적 국가인 만큼 디지털세를 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방어적인 이유는 ICT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많이 걸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기업이 부당함을 느끼고 본사를 세금이 적은 국가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문 내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물론 저 정도까지 추론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디지털세를 '왜' 도입하는지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야 해요. 지문에 그 배경이 써 있을 뿐만 아니라 예시를 통해 이해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4문단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 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일 수 있다.

저~~ 멀리 있어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지식 재산 보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다루려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생각을 촘촘히 잘 끌고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핵심이 바뀌었네요.

핵심 : ICT 지식 재산 보호 문제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지식 재산 보호 강화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problem'의 의미가 아니라 '논할 만한 것, 중요한 것'의 의미입니다. 즉,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는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해야 하니 자신들의 지식 재산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A]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식 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어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

문장이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지식 재산 보호가 약할 경우,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겠죠. 만들어 봤자 보호가 안 되니까요. 지식 재산 보호가 강하면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문장은 길지만 논리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납득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발생한 손해를 유인 비용, 후자로 발생한 손해를 접근 비용이라고 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될 때일 것이다.

<전자 = 보호가 약할 때>입니다. 유인/비용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인이 안 된다는 뜻이겠네요. 의미를 살려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후자 = 보호가 강할 때>입니다. 접근/비용이라고 합니다. 보호가 강하니 접근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때 보호의 최적 수준은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손해에 대한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어야 '최적' 수준이겠죠.

각국은 그 수준에서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한다.

<그 수준 = 최적 수준>입니다. 손해가 최소가 될 때 자국의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 주는 한 연구에서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보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엄청 긴 문장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야 합니다.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하려나 봅니다. 핵심이 조금 바뀐 것 같네요.

핵심 : 국민 소득 & 특허 보호

우리는 여기서의 '특허 보호'를 '지식 재산 보호'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 재산에 특허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상위 개념을 까먹으면 안 돼요.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국민 소득과 <특허 보호 정도 = 지식 재산 보호 정도>가 비례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의 국가>보다 특허 보호가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려도 문장 이해가 까다로우신 분들은 문장의 '주어', '서술어'를 찾는 연습을 꼭 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서술을 다루고 있는지 체크하시구요.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증감' 요소로 문제가 구현될 테니까요.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점차 높아지면 특허 보호 수준은 낮아지다가 높아지겠네요.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못하면 문제 가서 털리게 되어 있어요.

이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를음을 시사한다.

<이 = 소득 수준과 특허 보호의 관계>는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 = 특허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 <국가별 입장 = 소득 수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대네요. 여기 제가 재진술을 <>로 설명해 놓은 부분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문이 끝났네요. 험난했습니다. 서술이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와 납득을 동반하지 않으면 뚫어내기 힘든 지문이었어요.

누군가는 '이게 왜 어려워?'하실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쉽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문제에서 털리셨을 겁니다.

제가 4월 학평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눈굴리기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6월 모의고사 때 크게 다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해설을 읽으면서 반성하고 있겠죠.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핵심을 연결짓고, 재진술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며 글을 짜임새 있게 읽어나가야 합니다. 절대 17, 18학년도 같이 문제를 쉽게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문이 짧아지면서 선제를 세밀하게 내기 시작했고, 그만큼 문제에 가서 헤메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실력을 인정하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개념에 대한 정의>, <예시에 개념을 적용>, <재진술 파악>, <문제 포인트 잡기> 등을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9월까지 해야 할 것은 기출 지문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같은 말을 '갈게' 읽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문을 기준으로 수능 때까지 공부하세요.

올해는 이러한 지문을 뚫어내는 사람이 수능 1등급을 쟁취할 것입니다.

29.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60%	12%	17%	7%

①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특허권 & 영업 비밀 모두 '지식 재산'이었죠? 상위 개념을 까먹지 마세요. 교수님들께서 이 선지를 냈다는 것이 상위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② 영업 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 우리가 읽어냈던 핵심과 매우 동떨어진 선지입니다. 우리는 1문단에서 영업 비밀의 정의를 본 이후로 2, 3, 4문단에서 영업 비밀에 대해 다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답이죠.

③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은 무엇인가?

-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 디지털세>입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2, 3문단에서 주구장창 말했었죠?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를 만들어 이윤을 몰아 법인세를 회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선지의 질문에 대해 핵심으로 잡고 읽어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④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 로열티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급함으로써 그 국가의 이윤을 늘리고,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로열티를 사용하여 이윤을 줄여 법인세를 회피했었죠? '제반 비용'으로써 작용했습니다. 이는 3문단에서의 예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⑤ 이론적으로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당연히 손해가 최소가 될 때였죠? 그러면 <유인 비용 + 접근 비용>이 최소가 될 때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최적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30.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8%	8%	12%	55%

- 디지털세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법인세 회피의 문제를 배경으로 등장한 세금>,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머릿속에 미리 자리잡고 있어야 합니다. 글을 짜임새 있게 읽었다면 까먹지 않습니다. 만약 잊어버렸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정의와 쓰임새를 확인해야 됩니다.

① 지식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지식 재산 보호량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핵심의 얘기죠?

②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 수입에 부과되는 비용이었을뿐더러, 애초에 이윤에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③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적극적이다.

- 도입에 방어적이었습니다. 지문은 불친절하게 써줬지만 문제는 친절하게 그대로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히 납득하지 못했어도 문제는 풀 수 있게 해준다는 평가원의 배려가 보이네요. 다만, 납득하지 못했으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아봐야 하니 시간이 좀 낭비되겠네요.

④ 여러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 디지털세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법인세 회피를 막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회사가 있든 없든, 수입은 존재하므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세금이죠. 그 배경과 정의를 정확히 따지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된다.

-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정확히 정의를 묻고 있네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도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보아, 디지털세의 정의, 역할, 배경 등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허둥댄 학생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잡고 정의만 예민하게 체크해도 비문학 실력이 늘어요. 선지보고 모르겠으면 그 개념의 정의로 돌아가서 확인하시구요. 기본에 충실합니다.

31.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12%	22%	49%	10%

<보 기>

○ 과제 : '㉠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

• 가설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

• 판단

가설이 참이라면 ㉠고 할 수 있으므로 ㉠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 '법인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근거로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이라네요.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고 추론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 하지만 평가원을 믿으세요. 평가원이 시키는 추론을 절대로 지문에 써 있는 내용을 벗어나는 추론은 내지 않습니다. 주도적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인 이유도 내지 않았는 걸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디지털세가 '무엇인지', '왜' 도입하는지에 집중합시다.
 - 가설을 보니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네요. 27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진 문제를 풀 때는 상황을 먼저 특정짓고 나머지 요인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즉, <법인세율이 높다>를 먼저 고려하고, <수입 대비 이윤이 낮다>를 생각하는 것이죠. 법인세율이 높으면 '이윤'에 부과하는 세금이 많아지므로, 제반비용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 쬐서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을 줄이겠네요. 그래야 법인세를 조금 내니까요.
- ①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 수입이 많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회피니까요.
- ②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한다
-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 로열티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자회사가 로열티를 지출해야 최대한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③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을 먼저 잡아야합니다. 법인세율이 낮으면 이윤을 늘리겠죠? 그래야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높다. = 제반 비용이 높으니 이윤이 낮다.>입니다. 논리적으로 수입, 제반 비용, 이윤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릴 선지입니다.
 - 절대 눈굴리기로 비례 증감을 따진다고 풀리는 선지가 아닙니다.

④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이윤을 줄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으니 이윤을 줄여야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이윤을 줄이기 위해 지출하는 제반 비용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게 몰아줄 것이구요.
- 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
-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낮다.> 법인세율이 낮으면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윤을 늘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윤의 비율을 낮게 하네요? 틀렸습니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16%	38%	23%	12%

<보 기>

S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이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아니다.

항상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 읽어야 합니다. S국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의 국가>라네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문에서 소득 수준과 특허 보호의 관계에 대해 다뤘으니 말이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 그 수준을 탈출한 국가 보다는 특허 보호 정도가 높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ICT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S국의 특허 보호 정책은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대표한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는 <특허 보호 정책 = 지식 재산 보호 정책>을 확정지을 수 있겠네요. 이제 지문에서 <특허 보호 정책 = 지식 재산 보호>로 읽었던 것을 오류 없이 같은 말로 확정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식 재산에는 영업 비밀도 존재했으니까요.

- ①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바라겠군.
- 주도적인 국가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싶어합니다. 자신들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길 바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유인 비용에 대해 판단해야 됩니다.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 = 유인 비용을 줄임 =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 생산에 유인되기를 바램 = 지식 재산 보호 정도를 높임>입니다. 따라서 정답 선지가 되겠네요.
 - 만약 논리적으로 전개가 안 된다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비례 증감 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면 됩니다. 귀찮긴 하겠지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② S국에서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 S국은 현재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탈출한 국가보다 높은 보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 수준을 낮추면 <지식 재산 창출 의욕의 저하로 인한 손해 = 유인 비용>이 커지겠죠?
- 사실 S국이라는 전제를 깔아두지 않아도 성립되는 선지이지만, 평가원은 S국의 소득 수준에 따른 지식 재산 보호의 위치를 학생들이 정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③ S국에서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 접근 비용을 높이고 싶겠군.

- S국에서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 =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이 너무 높음>이라고 생각하면 보호 수준을 낮추려 할 것입니다. 보호 수준을 낮추면 보호가 안 되니, <유인 비용이 높아지고, 접근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네요.
-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보호를 낮추는지 높이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의에 맞추어 풀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침착하게** 풀면 돼요.

④ S국의 국민 소득이 점점 높아진다면 유인 비용과 접근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군.

- S국의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서 탈출 = 특허 보호 수준 낮아짐>하게 될 것이고 <일정 소득 수준 이상 = 소득 수준과 특허 보호 수준 비례>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특허 보호와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은 같은 것이니 그 수준은 낮아졌다가 높아지겠네요.
- 이것도 S국의 위치를 바탕으로 보호 수준과 연결지어 차근차근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⑤ S국이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는 감소하고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증가하겠군.

- <지식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일 때 = 유인 비용 감소 = 접근 비용 증가>입니다. <지식의 발전이 저해되어 발생하는 손해 감소 = 유인 비용 감소>, <다수가 지식 재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증가 = 접근 비용 증가>입니다. 역시 재진술일 뿐입니다.

3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17%	53%	12%	13%

- 2017학년도 법인격 지문에서도 등장했고, 2020 수능 BIS 지문에서도 등장했던,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흐름을 잘 따라가며 논리적으로 '납득'해야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네요. 이윤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제반 비용을 늘리는 것 = A국에 이윤 몰아주기 = A국에 로열티 많이 주기> 이것들과 같은 의미겠군요.

① Z사의 전체적인 법인세 부담을 줄인다

- B국은 법인세가 A보다 높은 국가였으니 이윤을 줄여서 그 이윤을 A국에 몰아준다면 Z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 애초에 이 부분의 핵심이 편법으로 Z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어 디지털세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② A국의 자회사가 거두는 수입을 늘린다

- <A국의 수입 늘림 = B국이 A국에게 로열티를 많이 지출함 = 이윤 몰아줌>입니다. 틀리지 않았네요.

③ A국의 자회사가 얻게 될 이윤을 줄인다

- A국의 이윤을 줄인다? A국은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라서 이윤을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④ B국의 자회사가 낼 법인세를 최소화한다

- 이윤을 줄여서 법인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이므로 최대한 A국에 수입을 몰아주고, B국의 자회사는 이윤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⑤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늘린다

- B국의 자회사가 지출하는 <제반 비용 =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를 A국에게 많이 지출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A국의 이윤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ICT 지문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내에서 모두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과세 문제 : <수입 - 제반 비용 = 이윤>이라는 논리관계를 중점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야 함. 그에 따른 디지털세 도입이 왜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함.
2. 지식 재산 보호 문제 : 지식 재산 보호와 그에 따른 손해 비용인 <유인 비용, 접근 비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소득 수준>과 엮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함.

결국 확실히 이해했어야 할 부분만 필연적으로 이해하고 잡아나갔다면 틀릴만한 문제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시험'이라고 불리기도 하구요. 하지만 아직 독해력이 부족하고 내공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이보다 어려운 시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문과 선지의 밀도가 높아졌다고 읽어낼 수 있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수능 때까지 근본적인 독해력 상승을 위해 노력합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외지 출신인 민 씨는 달리 생각한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가던 황만근은 토끼 고개에서 거대한 토끼를 만난다.

황만근 = 바보, 민씨는 황만근이 바보라고 생각 안 함. 황만근이 밤에 거대한 토끼를 만남.

이 정도로 줄거리에서 준 정보를 요약하고, 인물의 특성을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잡아야하구요.

“그기 뭐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꼬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썩 물러가고 토끼마 착 었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토끼가 황만근보고 집에 못 간다 했나 보네요. 내용만 간단히 잡으면서 갑시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 못 간다.”

<한 번도 맡아 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맡으면 괴리감이 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황만근이 여기서 죽는다네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황만근이 무서워한다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 황만근은 아무 말도 안 했는걸요.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중요합니다. 황만근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황만근에 대한 서술을 보고 황만근의 정서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상황만 보고 황만근의 정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좀 용감하네요.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쭈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토끼가 말을 하는 거도 이상했는데 팔이 토끼한테 빨려 들어갔네요. 그냥 계속 상황만 잡으면서 읽으면 됩니다. ‘건조하게’ 써져 있는 대로 읽으세요.

그와 별개로 괄호 안에 있는 서술은 <서술자의 개입>이죠? 만약 현장에서 못 잡아냈다면 공부하세요.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팔을 빼려 했대요.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끼치도록 차가웠다.

‘소름끼치도록’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황만근의 정서를 추측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항상 서술되어 있는 대로 읽으세요.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들이기 위해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토끼도 버티고 있네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엌게 밝아 오기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 체크해야겠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자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하고 말했다.

결국 살았네요.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말거라. 니를 탕으로 끓이서 어무이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어 치울거다. 니 가죽을 빗기서 어무이 목도리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장갑을 할 거다. **니는 인자 죽었다**, 자숙아” 하고 소리쳤다.

황만근의 ‘말’을 보니 화났습니다. 또한 ‘오기가 나서’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토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네 팔을 빼겠느냐.”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 오자 할 말이 없었다.

황만근이 ‘바보’라고 불리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세 가지 들어주기 전에는 니가잇거는 못 간다” 하고 말했다.

소원 들어달라고 지르고 봅니다.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무이가 팔죽 할마이겔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파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쭈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쩌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서술자의 개입> 일단 체크하시구요. 첫째 소원은 어머니의 장수네요.

토끼는 ㉣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걸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두 번째 소원은 아내가 생기는 것이네요.

“떡두께(떡두꺼비) 곁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농락했더니 빠졌네요.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찢찢매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탈출 성공! 토끼털이 주변에 있는 걸로 보아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고전소설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병법서가 곁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가는 황만근.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불안하네요. 어머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얼굴이 백지장>을 보고 어머니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네요, 토끼가 소원을 안 들어줬나.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주먹밥이 목에 걸렸나 봅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 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꽤않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녘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히서 죽을 뻔했다. 움직있다가는 더 맥힐 거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하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곁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왔나!”

어머니가 관찮아지셨네요. 황만근이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 우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살아나시고 기쁜 황만근. 어머니가 물 떠오래서 우물로 갔네요. 여기서 <엉덩이를 채어 물을 뜨러>를 어머니가 시켰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A]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내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황만근이 초청되어 같은 이야기를 할 정도면 사람들이 재밌어했나 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황만근 말을 못 알아들어서 계속 얘기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습니다. 황만근이 바보로 불렸었니까요. 하지만 항상 ‘서술어 - 초청되어’에 주목해서 ‘건조하게’ 써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B] 송편을 세 번 빚을 만큼의 시간, 곧 세 해가 흐른 뒤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진짜로 아내가 찾아왔네요. 토끼가 소원을 들어주긴 했나 봅니다. 사람들이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바보’로 보지 않았다고 읽어야겠네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계속 연결지어야 합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민담의 형식을 띠고 있는 글입니다. 현대소설이라기엔 좀 특이하죠? 좀 생소하더라도 하던 대로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의 상황, 정서를 ‘써 있는 그대로’ 체크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때로는 문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합당한 ‘선’ 안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감상력이고, 지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요. 그것이 문학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말이죠.

학생들이 그 선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상력을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세요. 기본적인 감상력은 꼭 필요합니다. 적어도 선지가 개소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의 힘은 있어야 하니까요.

34. ㉠, ㉡의 서술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지	㉠	㉡	㉢	㉣	㉤
선택률	15%	53%	5%	13%	14%

- ㉠과 ㉡은 서술자 개입이었죠?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정보는 그것밖에 없네요. 선지에서 묻는 것을 보고 하나씩 판단해봅시다.
 - ① ㉠을 통해 민 씨가 황만근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고 정확히 나와있네요. 써 있는 대로 품시다. 건조하게 읽고 푸셔야 해요. 선지를 대할 때는 최대한 예민하게 바라보되, 과추론, 과해석 없이 건조하게, 담백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 선지 판단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특히 올해는 더.
 - ② ㉡을 통해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도 다른 인물들처럼 서술자의 서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민 씨는 모른다'는 것으로 보아 서술자가 '민 씨'에 대해 서술하긴 했네요. 그럼 당연히 '서술/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 위를 보면 황만근이 '팔죽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민씨도 모른다'는 것으로 보아 민씨가 황만근의 표현을 듣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다.' 하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 사실 <황만근의 말을 전하는 민 씨>를 판단하는 과정은 매우 애매합니다. 평가원이 '민 씨가 황만근의 말을 전하고 있다', '혹은 남에게 들려주고 있다' 등의 확실한 표현을 명시적으로 지문에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평가원이 잘못 냈다고 생각합니다. 6, 9평에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은데 수능은 더 깔끔하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③ ㉠과 ㉡을 삭제하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 ㉠과 ㉡에 상관없이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은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과 ㉡이 없었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대결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가?>를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맞는 선지를 골라야 합니다. ㉠과 ㉡이 없어도 황만근과 토끼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④ ㉠과 ㉡은 황만근과 토끼의 대결 과정 자체에 더 몰입하여 읽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 서술자 개입이 있으면 몰입이 깨집니다. 극大本에서 나레이션이 나올 경우에 몰입이 깨지는 것과 같은 경우죠. <서술자의 개입>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 올해 문학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학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 어려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선지 하나하나를 더 꼼꼼히 분석하고, 선지에 나오는 문학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길 바랍니다.
 - ⑤ ㉠과 ㉡을 통해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다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황만근이 민 씨로부터 전해들었다? 말도 안 되죠. 황만근의 얘기인 건 제 동생이 읽어도 알고 있을 거예요.

35.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선지	㉠	㉡	㉢	㉣	㉤
선택률	2%	4%	4%	6%	84%

- ① ㉠: 주인공이 기이한 체험을 하는 공간
- ② ㉡: 주인공이 복귀해야 할 일상적 공간
- ③ ㉢: 주인공의 지난밤 체험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 설명할 게 없네요. 순서대로 토끼 만난 곳, 황만근이 사는 마을,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 ④ ㉣: 주인공이 어머니에 대한 불안을 감지하는 공간
- '마당'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황만근이 어떤 '말과 행동'을 취했는지 생각해야죠. 나상에서 밀줄 친 어휘의 의미를 따질 때와 같아요.
- ⑤ ㉤: 주인공이 어머니의 요청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러 간 공간
- 우물에 물 뜨러 갔지,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요청을 전달하러 간 게 아니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4%	9%	81%	4%

- ① [A]는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으나 여전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황만근을 '초청'할 정도면 흥미를 느낀거죠. 항상 '써 있는 대로' 문장 속 서술어, 부사어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단서를 이용하세요.
- ② [A]는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도 반복적으로 전달되면서 '이야기'의 내용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반복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맞지만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지는 [A]로 절대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써져야 합니다. 내용이 변형되었다든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황만근이 겪은 사건의 내용이 달라졌는지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 ③ [B]는 새로운 등장인물의 '말'에 따라 '말'을 처음 전한 존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 '처녀'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은 존재하지만 '말'을 하지도 않고, 따옴표가 존재하는 '말'은 애초에 토끼가 하는 말이므로 새로운 등장인물이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토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부분도 없구요.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거면 모를까..
- ④ [B]의 '말'은 [A]의 '이야기'의 일부로, '말'의 실현이 '이야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토끼가 말한 것이 '이야기'의 일부가 맞죠? <말 = 아내 생기게 해달라는 소원>이 실현됐죠? 그래서 황만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서술을 통해 이야기의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틀렸다 기엔 무리가 없네요.**
- ⑤ [B]는 [A]의 '이야기'가 삼 년 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의 실현에 대한 공동체의 확신 때문임을 보여 준다.
- 일단 '이야기'가 삼 년 동안 전해졌는지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 = 소원>의 실현에 대해 공동체가 확신하고 있지 않았습니디. 말이 실현된 이후에 사람들이 황만근을 다르게 본 것을 보면 말이죠.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4%	7%	18%	68%

— <보 기> —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소설에 대해 설명하니 읽고 가는 게 좋겠죠? '민담'스러운 현대 소설이라네요.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며 의외의 승리를 거둔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는 민담적 특징을 잘 보여 준다.

- 줄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이야기 = 토끼 만난 것>이죠? 이게 민담적 특징이랍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구성진 입담 등에는 언어의 주술성과 해학성이 잘 드러난다.

-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 토끼가 '죽는다'고 한 것>, <구성진 입담 = 황만근이나 어머니의 말>에서 언어의 '주술성'이란 '해학성'을 알 수 있네요.

<보기>와 소설을 모두 고려해서 선지를 판단해줘야 합니다.

- ① 황만근이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겠군.
- <비현실적임 = 민담적 특징>, 보기에 그대로 써 있죠?
- ②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죽는다 세 번 반복 = 주술적 특징>, 우리가 만약 소설만 봤다면 판단하지 못했겠지만 <보기>에 딱하니 '주술성'이 드러난다고 써 있습니다.
- ③ 황만근이 '너는 인자 죽었다.'라고 발언하며 위협한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겠군.
- 황만근이 토끼를 위협했더니 소원을 들어주었죠? 틀리지 않았네요.
- ④ '바보 자숙아'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신이한 존재 = 토끼>이죠? 황만근이 토끼를 무서워 했었는데 바보 자숙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황만근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 ⑤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라 할 수 있겠군.
- 토끼가 복수를 했다면 어머니를 살리지 않았겠죠. 어머니가 잘못되게 했을 수도 있는데,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냄으로써 살았으니 '복수'라기엔 해석의 방향성이 아예 반대입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를 먼저 봅시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 했네요. <자연>에 대해 서술하는 고전시가인가 봅시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사실감 있게’ 묘사했네요. 올해 특징이죠? 자주 비교/대조 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자연에서 <사회적 책무>, <이상적 인간상>을 찾았다네요. 잘 모르겠으니 ‘아 그렇구나’ 하고 지문 보러 갑시다.

<자연>에 대해 <사실적으로> 서술한다는 정보를 끌고 가야해요! 절대로 <보기>에서 얻은 정보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샅기 치니

‘금강대’, 자연인가 봅시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춘풍..? 봄바람이겠죠? 옥적성.. 성인가요? 첫잠을 깨웠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봄바람 불었다. 정도만 잡고 갑시다.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학이 옛 주인을 반기는 것 <같다네요.> <듯>이 나오니까 자연에 대한 비유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선지가 물어보면 그때 생각합시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구나

소향로 대향로를 본다네요. 자연인가 봅시다.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자연 얘기 하고 있으니까 <화자가 자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잡으면 됩니다. 화자가 진혈대 와서 앉으니까 풍경이 아주 이쁘게 봅시다. <진면목이 보인다잖아>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헌사토’ 정도는 알아줘야죠? <조화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정도로는 읽을 줄 알아야합니다. 고전시가 공부 하라고 했어

요. 제발 하세요 제발.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저랑 공부한 학생은 배웠었죠?
날거든 뛰지나 말든가, 셋거든 솟지나 말든가.
하고 자연의 완벽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부용? 몰라요. 고갯는 듯? 몰라요. 그냥 <자연을 비유하고 있구나>만 계속 가져가세요. 백옥은 알겠네요. 말 그대로 백/옥 일거고 ‘못갯는 듯’은 못갯는 듯? 으로 보이네요. [A]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 정도 해석이 안 되더라도 <자연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고 있다.>는 무조건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시가는 주제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주제를 잘 끌고 가야 합니다.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역시 자연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다를 박차고 북극을 사랑하는 것 같다네요? 뭘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놉홀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망고대 높고 혈망봉이 외롭다네요. 그 밑에는 다 모르겠고 굽힐 줄 모르느냐 정도만 보이네요. 자연에 대한 얘기겠죠 뭐 ㅋㅋ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집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녁(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너 같은 것이 없답니다. 자연 예찬이겠죠? 계속 자연 얘기 하고 있으니까요. 개집대 올라서 성 보면서 봉우리 많은거 보니까 기운이 있다네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연 예찬으로 봅시다.

<맑거든 좋지나 말든가, 좋거든 맑지나 말든가>라고 써 있죠? 자연이 그만큼 좋나 봅시다. 자연 최고!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샤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죠.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러 내어 창해(滄海)에 너이지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런느냐

사실 이 파트는 많이 본 부분이어야 합니다. 관동별곡은 당연히
 원래 공부가 되어있어야 하는 고전시가지구요.

어쨌든 해석해보자면 바위가 화룡소 같대요. 노룡이 있다는 것
 은 다 비유죠? 그 밑에는 모르겠습니다.

음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시든 풀을 살려냈대네요. 누가 살렸냐구요? 자연이 했겠죠 ㅋㅋ
 ㅋㅋ 역시 자연은 대단합니다!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다 모르겠고, 불정대 올라갔대요.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터 플터 이셔 배가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정말 하나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산이 여기보단 낫다고
 말 못하려니>라는 마지막 행만 해석이 되네요. 무슨소리죠?

중국의 명산이 지금 <여기 = 자연>보다 낫다고는 못한답니다.
 그만큼 현재 자연이 멋있나봐요.

결국 그냥 자연최고! 자연짱! 자연조아!!!! 밖에 없습니다.
 - 정철, 「관동별곡」 -

- *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 서호 넷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 동명 : 동해 바다.
- * 음애에 이온 풀 :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
- * 여산 : 당나라 시인 이백(이적선)의 시구에 나오는 중국의 명산.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9%	64%	14%	9%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이동하는진 모르겠는데, <자연에 대한 이중적 태도?> 화자는 자연조아!!!! 거리고 있는데 무슨 이중적 태도... 걸려야죠?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이미지의 대립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것도 좋은데,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진술은 말이 안 됩니다. 자연 보고 '자연 이쁘다..' 이라고 있는데 내적 갈등이라뇨! 이런 선지를 고르려면 확실히 내적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있었다면 <화자의 정서에 관한 부분이니 미리 체크했어야 했구요.>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선경후정>은 나중에 판단합니다. 즉, 경치가 먼저, 정서가 나중인지는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 <화자가 바라본 풍경 = 자연>과 <그에 대한 감흥 = 멋있어! 이뿌!>는 있죠?
- 이제 <선경후정>을 판단합니다. <개심대 올라서 '생'을 바라보고 '만이 천봉'을 보고 '맑고 좋다'고 확실히 정서를 진술했죠? 이렇게 지문을 보고, '그대로' 읽고 푸시길 바랍니다. 웬만해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적절한' 선지로 출제하기 때문이죠.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인지, 특징을 묘사하는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써 있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앞에 있는 바위가 노룡같다고 먼저 표현하고, 그 후에 바다를 봤네요.(바다인지 어떻게 알았냐구요?'해'라고 써 있잖아요 ㅎㅎ) 근경에서 원경입니다.
- <노룡> 같다고 했으니, 비유했으니까 묘사라고 할 수도 있죠?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 <이동 경로가 있는지>, <빠르게 전개 됐는지> 판단해야겠네요.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넘어, 외나무 썩은 다리>라고 확실히 <이동 경로>가 있네요.
- 그렇다면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말한 게 아니라서 빠르게 전개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이동경로가 존재하면 시상이 느리게 전개되고, 없으면 빠르게 전개된다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그렇듯하게> 출제한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걸리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듯>한 선지에 넘어가지 마시고 '명시적'으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39.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53%	11%	21%	10%

- ① 봉우리를 '부용'을 꽃고 '백옥'을 묶은 듯한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 '고갯' 게 '꽃' 건가 봅니다. '뭇것'은 '묶었'인가 봐요. <시각적으로 비유했으니까 시각적 형상으로 묘사>, 나쁘지 않죠?
- '백옥', 아름답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화자는 자연이 최고입니다. 아름답다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어요.
- ②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하였다.
- 봉우리를 '백옥'에 빗댄 것은 백옥을 묶고 있는 것 같다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명'을 박차다고 했지 <동명 자체에 빗대지는 않았잖아요??> **확실히 틀린 선지입니다.** 선지와 시를 예민하지만 건조하게, 문자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빗대지 않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 그렇다면 영속성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동해 바다는 영원한 것 같아도 백옥은 바뀔 수도 있지않아요?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영역은 절대로 답의 출제 근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걸 찾으세요.
- ③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에 빗대어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 '괴다'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턱을 괴다' 할 때의 '괴다'이군요. [A]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ctrl+c , ctrl+v입니다. 동해바다, 북극 보면 웅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 ④ '날거든 뛰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구를 통해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 <날거든 뛰지나 말든가, 셋거든 솟지나 말든가> 행위를 부각했죠? 대구 법도 사용했구요. 행위를 묘사했으니까 역동적이다! 방향성을 따지세요. 아예 반대의 해석이 아닙니다.
- ⑤ '고갯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동작을 보여 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였다.
- 꽃고, 박차는 것이 상태와 동작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죠? 대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도 당연하구요. 여러 모습을 보여줬으니 다채롭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9%	57%	11%	16%

<보 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아까 읽었죠? 조선의 사대부와 정철을 비교/대조하는 <보기>입니다.
- 둘 다 <자연>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이 공통적이고 <사대부 = 관념적, 정철 = 사실감> 이렇게 차이점이 있네요.
-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평가원은 <'혈망봉'을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과 같이 <조건>을 달아주는 곳에서는 틀리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해석에 대해 정확히 '판단'만 하면 됩니다.
- <보기>를 보면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했다고 했죠? <굽히지 않는다 = 이상적 인간상>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해석의 방향이 반대가 아니잖아요?
-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호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인걸을 만들겠다. = 이상적 인간상 = 사회적 책무>입니다. <보기>에서 보면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했다고 했으니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자연의미>가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작가는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미>에 대해 서술하는데, <사실적>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영향>과 같은 <관념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면 맞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자연을 사실감 있게! 이게 맞는 말이죠.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 관념이 아니라 현실에서(사실적으로) 맞죠??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전우치, 구미호, 천서에 대한 이야기군요. 흐름을 잡고 갑시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 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전우치가 뺏겼습니다. 여우 죽여버리겠다네요.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라.

전우치 쫓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곳인가 보네요. 그 와중에 책은 다시 가져왔습니다. 부적 때문에 가능했네요.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며,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여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바로 췌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공중이 황홀했다.

천서에서 술법 배우고, 벼슬하면 효도 못할 것 같아서 ‘계교’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계교’는 고전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계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구름타고 궁중 들어갑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A]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옥황상제가 보낸 존재인 척, 임금을 농락하고 있네요. 그냥 간단히 상황만 잡으면 됩니다. <주인공의 행동의 이유>, <행동의 결과>, <정서>, <상황> 정도만 잡아내면 다 풀 수 있어요.

전우치가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험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

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황금 들보 바치라네요. <칠 월 칠 일 오시>, <길이, 너비> 등은 그냥 세부정보입니다. 만약 나오면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확인하면 되니, 우리는 최대한 간단히 상황만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삶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화담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우치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화담이 더 센 존재인가 봅시다. 화담이 전우치를 잡았군요.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담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싸움에 진 후에 화담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담의 가르침을 듣고 반성하고 교화되었네요.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 왈,

저 사건을 이후로 모친 봉양도 하고 성실하게 살았네요. 예고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화담이 왔습니다.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며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 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풀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화담이랑 구미호 죽이러 떠납니다. 그 와중에 노복에게 재산도 주어 조상의 제사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작자 미상, 「전우치전」-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는 뭐가 중요하냐?

<카메라 이동>이 중요합니다. 항상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우치가 구름 타고 궁궐에 갑니다. 어디서 읽었던 것 같죠? (가), (나)로 되어있으니 (가)와 엮어서 읽어야 합니다. 분명히 왕을 농락하려 가는 거겠죠?

왕 :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찌렁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 했습니다.

전우치 :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뜯뜯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역시 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황금 들보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황금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냐고 묻고 있군요. 왕한테 꿈에서 명령하고 찾아온 상황인가 봅니다.

음악이 맘에 안 든다니까 음악을 바꾸겠조?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음악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며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전우치의 도술로 음악을 바꾸고 있네요. 보물도 깨는 것으로 보아 매우 건방집니다.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

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거울이 맘에 들었는지 가져갑니다.

전우치 : 왕은 고개를 들라.

왕 : 예?

전우치 :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 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하네요.

전우치 : 어떤가?

왕 :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분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왕이 드디어 전우치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음을 알아챱니다.

전우치 :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 나는 궁중 악사들.

왕 **빡**쳤조? 전우치는 여유롭습니다.

전우치 : 도사 **놈**이라? 에... 도사는 무엇이냐? ㉣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쇠-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가 도술도 부리면서 여유롭게 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에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려고 왔다네요. 백성을 챙기지 않는 왕을 농락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선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술병 목을 치면 마치 무관들의 목이 날아갈 것과 같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왕 :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냥을 주겠다.

전우치 :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전우치가 그림으로 도망칩니다. 어렵지 않네요. 특이한게 없습니다. 이제 선지 판단만 잘하면 됩니다.

- 최동훈, 「전우치」 -

41. (가)의 **화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7%	8%	11%	10%	4%

- 화담은 전우치를 교화시키는 인물입니다. 전우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했고, 구미호를 잡으러 함께 떠나기도 하는 인물이죠.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 설명해야 하나요?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 전우치의 요청이 아니라, 화담의 제안이었습니다. <선지를 세밀하게 판단하세요>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 전우치는 공격하지 않았죠?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 퇴치하러 가긴 했는데 아직 퇴치한 상태는 아니죠?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 약속이 뭔지 살펴봅시다.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음>이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와서 같이 영주산에 갔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개소리네요.

- 화담은 무언가를 재촉한 적도 없습니다.

4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a~e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43%	17%	20%	11%

— <보 기> —

선생님 :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 (가)에서 방법이 적힌 천서를 얻었죠?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 전우치는 여기까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왕을 농락했죠.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 전우치도 어머니를 위해 황금 들보를 얻으려 한 것으로 보아 충분히 '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 결국 또 <전형적인 영웅 소설 vs 전우치전>의 구도입니다. 비교/대조가 왜 이번 시험의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이번 시험 뿐만 아니라 올해 수능까지 기초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1 :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a

- 공통점이었죠?

학생 2 : 전우치가 **총**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b

- 전우치가 '총'을 다했나요? 왕을 농락했습니다. 확실히 틀렸죠. 효를 실천하려고 하긴 했습니다. 낡으면 안 돼요.

학생 3 :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c

- 전우치는 입신양명 하면 어머니께 효도하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차이점입니다.

학생 4 :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d

- 다르죠..? 왕을 농락 vs 나라를 구함, 비교해보시면 간단하죠.

학생 5 : 전우치가 재산을 훔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e

- 노복에게 주고 화담이랑 떠나죠?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노복에게 주죠.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6%	15%	52%	11%

- (가)와 (나)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A]와 (나)를 정확히 보고 써진 대로 풀고 판단하면 됩니다.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 [A]에서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존재인 것처럼 아주 근엄하게, 애기했습니다. **확실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 그러나 (나)에서는 왕을 농락하면서 보물도 깨고, 놀리기도 하면서 건방진 모습을 보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죠.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 [A]에서는 벼슬을 얻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 어머니께 효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황금 들보를 명령했죠?

- (나)에서는 착한 전우치였습니다. 기근을 겪는 백성들에게 주려고 황금을 명령했으니까요.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 기억이 안 나면 가서 읽어봅시다.[A]에서는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협박했네요.

- (나)에서는 ‘7배, 70배 700배’로 갚아준다면서 보상을 약속했네요.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A]는 그냥 가서 읽어보세요.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갔다네요.

- (나)에서는 그림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돌아올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선지를 하나하나 따지면 됩니다. <돌아올 것을 예고 했는지>, <말을 탔는지>, <산수화 속으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말이죠. ‘세밀하게’.. 아시죠?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 [A]에서는 황금 들보의 길이, 너비까지 알려주면서 ‘자세히’ 서술했죠?

- (나)에서는 꿈에서 명령했다고 써 있습니다. 기억 안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도 항상 돌아가서 찾아봐요.

4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8%	8%	76%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 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 ‘생선이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하면 왕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해석의 방향성이 반대가 아닙니다.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잘해줬는데 왕을 농락하다니!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 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 도사 ‘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드‘님’에서. 당연히 자신을 농락했는데 적대적으로 느끼겠죠?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뀌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 지금 전우치가 왕을 너무 잘 농락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틀린 선지죠. 방향성이 아예 반대입니다.

- 그리고 음악이 바뀌는 거랑 대결이랑은 1도 상관이 없네요. 상관이 있다면 전우치가 **마음대로** 음악을 바꿀 수 있다는점? (전우치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30%	23%	36%	4%

- 예상 외로 오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아마 <카메라>에 대해 정확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선을 넘는 주관을 자꾸 선지에 주입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선지가 요구하는 것 그대로 푸셔야 해요.

①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 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 전우치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권위, 위엄>을 위해서라면 올려다보는 연출이 틀리진 않았네요.

②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참 많은 선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게 출제된다고 했죠?

- 거울에 관심이 있으면, 거울을 바라보는 전우치의 얼굴 혹은 눈동자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해설은 조금 부족합니다.

- ㉢을 보면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카메라는 눈을 보여줘야 해요.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해석입니다.

③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게 틀렸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④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 전우치의 능력을 전달하고 싶답니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인지 판단합니다.

- ㉤을 보니 <바람을 다스리고 → 비를 내리고 → 땅을 접어 달리네요.> 이게 어딜 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 공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틀린 선지인데, 학생들은 이 선지를 '그래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 아닐까? 동시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관을 집어 넣고, 지문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선지가 <그럴 듯 하니까> 고른 것이죠.

- 제발 써져 있는 대로 푸시다.

⑤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 왕을 보여주며 웃음소리를 길게 끌면 왕이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죠? 해석상 방향이 반대가 아닙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김민재T(피램)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완벽하게 써주셔서 그 글을 인용합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학생들의 기출 분석 정도 및 실전연습이 심각하게 안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대충 기출문제에서 답의 근거만 찾아보고 이런저런 문제 찾아 아무 생각없이 푸는 것은 참으로 편합니다. 1타 강사들의 EBS 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형형색색 필기하고, 무엇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것은 참으로 편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 출제기관에서 제시한 1등급 커트라인 근처의 점수를 보며 조마조마하는 것은 참으로 편합니다.

기출문제의 문장 하나하나, 문단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뜯어보며 '해야 할 생각'을 정리하는 공부는 참으로 힘듭니다. EBS 연계보다는 본질적인 수능 문학 선지 판단 실력을 키우는 공부는 참으로 힘듭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 단순한 점수가 아닌 실전에서 나의 디테일한 행동 양식을 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학생의 절대 다수는, 참으로 힘들고 재미없는 후자의 공부를 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전자의 공부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학생들 말입니다.

아직 6월입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요령 피우고,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으려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정말로 고통스럽겠지만, 본질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1년을 단순히 '힘든 시기였다'라는 이유로 날려 버린다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몇 년 후의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1년을 보내봅시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ps.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근본적인 공부를 했지만, 시험을 망친 분들! 좌절하지 마시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각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지치지 말고, 편한 공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버텨주세요. 항상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 김민재(피램)

좀만 힘내서 힘든 공부를 합시다.

편한 공부는 절대로 실력, 점수를 올려주지 않아요.

공부가 끝나면 한없이 피곤해야 하고, 동시에 뿌듯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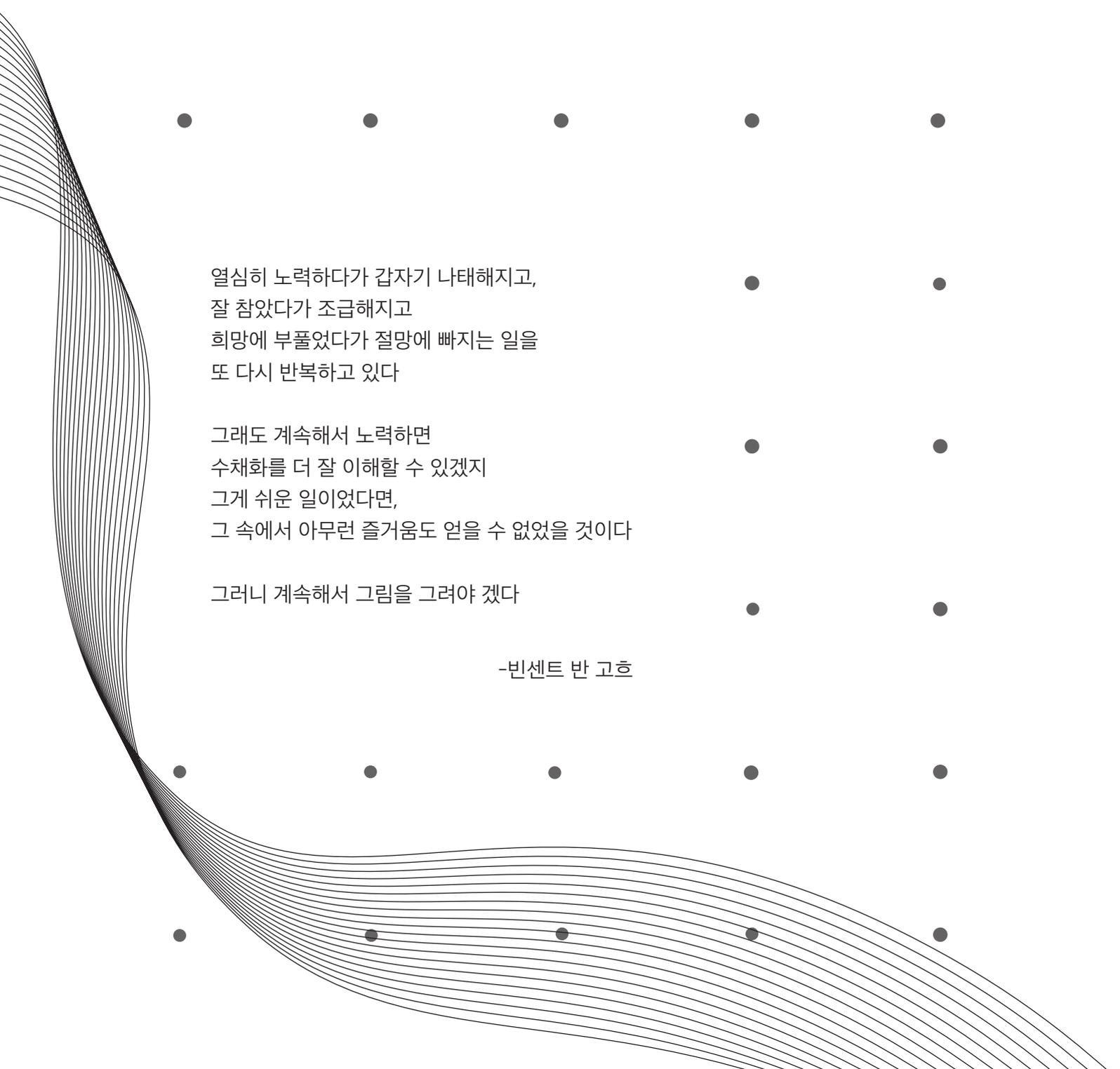
1년을 그저 '거쳐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아를 찾는 시간'으로 생각해주세요.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제 학생들 다 응원합니다. 제일 아끼구요.

필요한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 윤지환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겠다

-빈센트 반 고흐